

대학생의 기회불평등인식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대한 그릿의 매개효과

이숙정, 김혜영*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The Mediation Effect of Gri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Inequality of Opportunity and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Sook-Jeong Lee, Hyeyoung Kim*
Department of General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이 지각하는 기회불평등인식이 그릿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회불평등인식, 그릿, 진로준비행동 및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45명의 자료가 수집되었고,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등을 제외하고 최종 238명의 자료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문제의 검증에 기술통계, 상관분석, 분산분석, 회귀분석, 매개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회불평등인식, 그릿,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의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학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회불평등인식, 그릿, 진로준비행동 간 상관관계는 유의하였으며, 기회불평등인식은 그릿과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회불평등인식과 진로준비행동 관계에서 그릿은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이 인식하는 우리사회의 기회불평등 담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진로설정 과정에서 비교적 장기간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진로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유형화와 고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mediation effect of gri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inequality of opportun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wo hundred forty-five data were collected, and the final 238 data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s, variance, and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to verify the research questions.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y gender in the perception of inequality of opportunity, gri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ut, the difference by grade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and it was found that perception of inequality had a negative effect on gri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Lastly, the results showed a mediating effect of gri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inequality of opportun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results of this study raise the need for an in-depth discussion on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our society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In addition, the advancement of career education and counseling programs that can promot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r a relatively long time in the career setting process is also necessary.

Keywords : Inequality, Grit, Career Preparation, Mediation Effect, College Student

본 논문은 2021년도 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Hyeyoung Kim(Sookmyung Women's Univ.)

email: hyeyoung@sookmyung.ac.kr

Received December 27, 2021

Revised January 17, 2022

Accepted March 4, 2022

Published March 31, 2022

1. 서론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기회불평등인식, 그릿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하여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실시되었다. 대학생활은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자신의 관심과 적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직업(또는 직무)의 세계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단계로 진로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청년들은 자신의 내적 성찰은 물론이고 사회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노력한다.

최근 사회의 불확실성과 일자리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비정규직의 증가, 청년 일자리의 감소, 경력있는 신입, 자격이나 면허의 과도한 스펙 요구 등으로 취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의 양극화 정도가 심화할수록 좋은 일자리를 향한 경쟁은 치열해지고 그 경쟁에서 청년들의 불리함은 더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1]. 이러한 상황에서 취업의 기회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가의 문제는 청년들의 기회불평등인식 뿐 아니라 진로준비 과정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해 더욱 민감해지며,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좋은 일자리의 부족은 기회의 평등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2]. 더구나 대학에서 진로와 취업을 준비하고 수년 내에 사회진출을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기회의 평등은 청년기뿐만 아니라 이후 삶의 기회의 형평성을 결정하므로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된다[3].

민주사회에서 공정과 평등은 중요한 이슈이며,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믿음은 그 사회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최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양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특히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은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학생들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지속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열정으로 진로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신의 능력과 발전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신뢰하는가는 의사결정에 중요한 심리적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릿(Grit)은 개인의 강점을 통한 성장과 발달에 주목하고 긍정심리학에 이론적 기반을 둔 개념으로[4], “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열정과 능력”으로 정의된다[5]. 그릿은 하나의 단일 개념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복합개념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흥미유지(consistency of interest)로

열정의 정도를 나타내며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한 가지 목표나 관심을 유지하는 정도를, 다른 하나인 노력지속(perseverance of effort)은 장애물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끈기와 인내를 의미한다.

그릿은 진로준비 과정에서 겪는 방해요소 및 스트레스 대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격 차원이기에[6], 대학생이 장기적 관점에서 진로를 결정하는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그릿을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비인지적이고 행동적 차원의 요인으로 접근하고 있고[7], 최근 관련 선행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 그릿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릿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 다른 하나는 그릿이 매개 또는 조절변인으로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이다.

예를 들어, 그릿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관계에서 진로정체성 등 진로관련 변인들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있고[7], 대학생의 그릿, 진로준비행동, 그리고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그릿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효과를, 진로결정수준에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8], 그릿, 진로장벽,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그릿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효과를,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6]. 그 외에, 부모애착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9],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10], 성찰학습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분석한 연구들[11]이 있다.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이는 신체 및 정서적 압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탐색과 취업준비는 지속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의 원인들을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취업환경의 인식에 대한 고려없이 개인적 차원에서만 찾는다면, 청년들의 불안을 줄이고 교육현장에서 유연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하여 진로장벽 또는 취업장애의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이 있지만[11,13], 세대 간 사회이동, 노동시장 기회구조 등 기회불평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이것이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연구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노동시장의 첫 진입은 취업환경에 영향을 받고 이것이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주기 때문에[1], 공정이 청년세대의 핵심가치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진로와 취업을 준비하

는 대학생들의 기회불평등인식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비교적 장기간의 노력과 열정으로 정의되는 그릇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취업을 위한 진로준비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진로준비행동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심리사회적 자원과 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14].

이 과정에서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진로준비행동의 경우, 인지적·행동적 의미가 포함된 복합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지만, 관련 선행연구들이 진로준비의 실천활동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어서[6], 진로준비의 과정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을 자기이해, 직업능력 향상, 직업세계 탐색을 모두 고려한 관점을 취하고자 한다. 이 관점에서 전제하는 진로준비행동은 한 개인의 일과 관련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진로와 관련된 자기자신의 심리적·환경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자기이해 행동으로,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직업능력 향상행동으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정보수집 활동 및 탐색활동을 직업세계 탐색행동으로 통합시켜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15].

대학생 시기는 진로탐색과 진로준비 과정을 거쳐 예비사회인으로서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그에 따른 중압감도 매우 큰 시기이다. 따라서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준비를 개인적 차원에서 최대한 한다고 하더라도 성별, 학벌, 가족배경 등의 사회구조가 불평등하고 공정한 기회의 접근을 제한한다면, 적극적인 진로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취업장애와 진로장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므로[16], 만일 객관적인 불평등의 상황이 존재하고 이를 단기간에 변화시킬 수 없다면, 심리적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자기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변화에 대한 신념을 갖는지는 기회불평등인식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인구학적 변인(성별, 학년)에 따라 기회불평등인식과 그릇 및 진로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대학생의 기회불평등인식과 그릇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대학생이 지각한 기회불평등인식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그릇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은 대학차원에서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집단별 특성에 적합한 진로교육을 위해서는 이들의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기회불평등인식과 그릇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검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인구학적 변인(성별, 학년별)에 따라 기회불평등인식, 그릇,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대학생의 기회불평등인식, 그릇,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셋째, 대학생의 기회불평등인식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그릇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참여자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245명이었는데, 이 중 불성실한 응답과 결측치가 있는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 238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여학생 128명(53.8%), 남학생 110명(46.2%)이며, 학년별로 1학년 91명(38.2%), 2학년 83명(34.9%), 3학년 64명(26.9%)이었다. 교양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특성상 전공은 인문사회계열 51명(21.4%), 자연과학계열 87명(36.6%), 공학계열 79명(33.2%), 예·체능계열 21명(4.2%)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있다. 연령 범위는 18세-24세(M=21.07, SD=1.52)였다.

2.2 측정도구

기회불평등인식, 그릇,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우선 기회불평등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5문항(예, 한국사회는 개인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인가)을 사용하였다[2,17]. 5점 Likert척도이며, 불평등, 기회보장 등의 내용으로 기회불평등인식의 문항 중 불평등인식 정도를 묻는 문항은 역코딩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문항의 내적합치도 Cronbach alpha는 0.74이다.

그릇 척도는 흥미유지 4개 문항(예, 나는 목표를 세우지만 나중에 그것과는 다른 일을 하곤 한다)와 노력지속

4개 문항(예, 어려움은 나를 꺾지 못한다)의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4].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이며, 흥미유지 4개 문항은 역코딩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문항의 내적합치도 Cronbach alpha는 0.79(.69-.74)이다.

진로준비행동 척도는 자기이해행동(10문항, 나는 진로에 대한 나의 목표를 잘 알고 있다), 직업세계탐색행동(6문항, 나는 진로와 관련된 스터디 활동을 한다), 직업능력향상행동(9문항, 나는 관심 있는 기업의 채용조건을 찾아본다) 등 3개 하위요인,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15]. 5점 Likert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 산출한 문항의 내적합치도 Cronbach alpha는 0.88(.79-.91)이다.

2.3 연구모형

기회불평등인식, 그릿,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이론적, 경험적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회불평등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릿을 매개로 간접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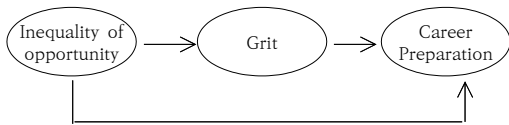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계량적 분석은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우선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별 차이 검증을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기회불평등인식과 그릿,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기회불평등인식이 그릿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회귀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회불평등인식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집단별 차이검증

3.1.1 성별차이 분석

연구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집단별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기회불평등인식과 그릿은 남학생이, 진로준비행동은 여학생의 평균점수가 조금 높았으나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5$).

Table 1. Gender Differences of Variables

	Gender	N	M	SD	t	p
Inequality of Opportunity	Female	128	2.52	.49	-.42	.67
	Male	110	2.54	.40		
Grit	Female	128	2.93	.57	-.81	.42
	Male	110	2.99	.67		
Career Preparation	Female	128	3.52	.53	.18	.86
	Male	110	3.50	.45		

3.1.2 학년별 차이 분석

기회불평등인식, 그릿, 진로준비행동이 학년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 번인 모두 3학년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학년, 1학년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각 요인별로 세 개의 집단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가를 Schéffe 사후검증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그 결과, 기회불평등인식과 진로준비행동은 모든 학년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으며($p < .05, .001$), 그릿 변인의 경우, 2학년과 3학년의 차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집단 간 차이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Table 2. Grade Differences of Variables

	Grade	N	M	SD	F	Shéffe
Inequality of Opportunity	1	91	2.31	.42	24.51***	1<2,3*** 2<3*
	2	83	2.57	.44		
	3	64	2.78	.36		
	total	238	2.53	.45		
Grit	1	91	2.75	.58	10.21***	1<2* 1<3***
	2	83	3.01	.61		
	3	64	3.18	.60		
	total	238	2.96	.62		
Career Preparation	1	91	3.25	.38	33.54***	1<2<3***
	2	83	3.55	.47		
	3	64	3.83	.47		
	total	238	3.51	.49		

* $p < .05$, *** $p < .001$

3.2 기회불평등인식, 그릿,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우선 기회불평등인식, 그릿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세 요인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기회불평등인식과 그릿의 상관은 .465, 진로준비행동과의 상관은 .577, 그릿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은 .363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이는 취업기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할수록 그릿과 진로준비행동의 수준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2.1 기회불평등인식이 그릿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기회불평등인식이 그릿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각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 Effect of Inequality of Opportunity on Grit

Independent	Dependent	B	SE	t	p
Inequality of Opportunity	(constant)	1.34	.20	6.54	<.001
	Grit	.64	.80	8.06	<.001
ANOVA					
	SS	df	MS	F	p
Regression	19.62	1	19.62	65.01	<.001
Residual	71.22	236	.30		
Total	90.84	237			
R=.47, R ² =.22, SE=.55, p<.001, Durbin-Watson=2.02					

Table 4. Effect of Inequality of Opportunity on Career Preparation

Independent	Dependent	B	SE	t	p
Inequality of Opportunity	(constant)	1.90	.15	12.63	<.001
	Career Preparation	.64	.06	10.84	<.001
ANOVA					
	SS	df	MS	F	p
Regression	19.31	1	19.31	117.55	<.001
Residual	38.76	236	3.16		
Total	58.06	237			
R=.58, R ² =.33, SE=.41, p<.001, Durbin-Watson=1.72					

Table 3과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회귀모형이 산출되었고 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종속변수와 잔차의 상관정도를 알아보는 Durbin-Watson 값이 각각 2.02와 1.72로 나타나 2.0에 가까운 값을 보이고 있으므로, 종속변수와 잔차들간의 상관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기회불평등인식이 그릿과 진로준비행동을 예언하는 의미있는 변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3.2.2 그릿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기회불평등인식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가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가 제안한 방법으로 그릿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18].

Table 5. Mediation Effect of Grit

		B	SE	beta	t	p
1	(constant)	1.90	.15		12.63	<.001
	Inequality of Opportunity	.64	.06	.58	10.84	<.001
2	(constant)	1.77	.16		10.90	<.001
	Inequality of Opportunity	.57	.07	.52	8.72	<.001
	Grit	.10	.05	.12	2.03	<.044

Dependent variable: Career Preparation

R=.59, R²=.34, SE=.40, p<.001, F=61.60, Durbin-Watson=1.74

Table 5에 제시한 1모형과 2모형을 비교해 보면, 그릿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p < .001$). 1모형에서 기회불평등 인식의 계수 0.64가 2모형의 0.57로 감소했다. 따라서 매개변인인 그릿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분 매개효과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더불어 매개변수를 통해 종속변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기회불평등인식과 그릿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모형에서 독립변인의 설명력은 약 34%로 나타났다.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한 기회불평등인식과 그릿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요한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대학생의 기회불평등인식과 그릿 및 진로준비행동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세 변인 모두 성별 차이는 없었고 학년별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성별차이를 살펴보면, 기회불평등인식의 경우, 선행연구에서는 성별 평균(여: M=2.38, 남: M=2.68)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남학생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본 연구에서도 남학생(M=2.54)의 평균 점수가 여학생(M=2.52)의 점수보다 약간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릿의 성

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선행연구[6]에서는 남학생(M=3.22)이 여학생(M=3.0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진로준비행동의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이는 선행연구[6,19,20]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진로준비행동에 성별 차이가 유의하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2].

이와 같이 각 변인들의 성별 차이 분석은 일관적인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는 기회불평등인식의 성별 차이를 노동시장의 젠더 격차 문제로 분석하기도 하지만[2,3], 기회불평등인식이 사회변화에 민감하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원인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릿과 진로준비행동의 경우에도 성별 차이 분석 결과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성별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배경을 고려한 충분한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학년별 차이의 검증은 관련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진로준비행동의 경우 대학생의 학년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학년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들[6,8,19,20]을 지지하고 있다. 진로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학년이 되었을 때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 상황은 취업시장과 직업세계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신입생 시기부터 진로탐색 과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개인의 니즈에 맞게 진로준비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기회불평등인식이 그릿과 진로준비행동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회불평등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기회불평등인식과 부분적으로 유사한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는 진로장벽 또는 취업장애 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13,16]과도 유사한 결과이다. 공정과 정의의 중요성을 중시하는 현재 20대들에게 취업시장으로의 진입 과정이 평등하거나 채용 과정이 공정하다는 믿음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진로준비와 취업 과정에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인내와 의지를 갖고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회불평등인식이 그릿을 통해 목표성취를 위한 마음의 근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은 대학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대학생들의 진로지도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준다. 최근 대학 차원에서 전문적인 진로와 취업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에[8], 끈기와 도전의식을 유지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적극적인 진로준비를 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의 심리적 건강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과 상담, 그리고 전공이나 진로계열별 요구수준과 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진로진도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기회불평등인식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그릿은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기회불평등인식과 그릿은 진로준비행동을 34%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회불평등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릿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도 준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독립변인과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예를 들어,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14], 애착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9]가 대표적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면, 기회불평등인식이 낮을수록 개인의 강점을 통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볼 수 있고, 또 이러한 인식은 진로준비행동에도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릿은 인식과 태도를 넘어 실제 목표추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이고 가시화된 행동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21], 긍정심리학을 토대로 하는 그릿이 기회불평등인식과 진로준비행동을 매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릿이 직업 및 진로발달을 포함해 수행의 영역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을 고려해 볼 때[22], 꾸준한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특징으로 하는 그릿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마련과 진로지도와의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두 가지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기회불평등인식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기회불평등인식의 성별 차이를 보고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집의 한계로 인한 연구결과와의 차이로 볼 수도 있지만, 여전히 노동시장과 취업시장에서 젠더 격차는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학생과 남학생의 노동시장 환경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취업시장으로의 진입의 기회가 공정한지 등에 대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그릿은 긍정심리에 토대를 두고 있고 이러한 특성이 기회불평등인식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청년층에서 세대 간 사회이동에 대한 낙관주의가 계층화되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계층화된 낙관주의가 객관적 불평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추후 연구에서는 청년세대 내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배경 변인들을 고려하여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밝히는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1] J. Nahm, K. Ryu, Y. Kim, Y. Byun, S. Choi, C. Hiessl, "Vocational Education and Social Mobility", Research Report 2019-01,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p.63-126, 2019. <https://www.krivet.re.kr/ku/da/kuBAALsA.jsp>
- [2] E. Kim, E. Lee,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opportunity inequality on career resilience and career-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8, No.1, pp.115-136, Mar. 2018. <http://www.earticle.net/Article.aspx?sn=330664>
- [3] Y. Kim, "Unequal pathways to adulthood: Inequality in labor market and family formation opportunities of young adults in Korea", *Social Science Review*, Vol.47, No.2, pp. 27-52, Nov. 2016.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486535>
- [4] H. J. Lim, "An Exploratory study on grit's factor structure and its validity",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18, No.2 pp. 169-192, Jun, 2017.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94299>
- [5] A. Duckworth, C. Peterson, M. Matthews, D. Kelly,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ersonality*, Vol.92, No.6, pp.1087-1101, June. 2007.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92.6.1087>
- [6] H. J. Seo, J. Y. Lee, "The relationships among grit,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No.4, pp.1259-1284, Dec. 2021.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21.21.4.1259>
- [7] J. Ji, S. Heo, "Mediating effect of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termination self-efficacy in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dental hygien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11, No.6, pp.162-170, Jun. 2021. DOI:<https://doi.org/10.22156/CS4SMB.2021.11.06.162>
- [8] K.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paration behavior, career decision level, and grit of undergraduate students", *Culture and Convergence*, Vol.43, No.12, pp.941-958, Dec. 2021. DOI:<https://doi.org/10.33645/cnc.2021.12.43.12.941>
- [9] Y. Lee, J. Jun,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ttachmen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Vol.36, No.2, pp.117-131, Jun. 2020. DOI: <https://doi.org/10.14333/KJTE.2020.36.2.117>
- [10] C. S. Ju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it of teenagers and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1 pp.675-684, Feb. 20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1.675>
- [11] A. Hong, ·E. Hwang, ·Y. Jo, ·Y. Kim, ·M. Choi,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reflective learning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36, No.4, pp.1-20, Aug. 2017. <https://www.koreascience.or.kr/article/JAKO201735353133332.page>
- [12] Y. An, S. Kim, W. Kim, M. Kim,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time management behaviors,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nd job search burnout", *Journal of Education and Culture*, Vol.26, No.6, pp.271-285, Dec. 2020. DOI: <http://doi.org/10.24159/joec.2020.26.6.271>
- [13] J. Han, Y. Chang,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A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career resilience and willingness to compromise career",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34, No.2, Jun. pp.121 - 142. DOI: <https://doi.org/10.32341/JCER.2021.6.34.2.121>
- [14] H. Song, Y. Choi, "Mediation effect of gri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33, No.1, pp.65-83, Mar. 2020. DOI: <http://doi.org/10.32341/JCER.2020.03.33.1.65>
- [15] Y. Choi, S. Ki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3, No.5, pp.2085-2097, Oct. 2012. DOI: <http://doi.org/10.15703/kjc.13.5.201210.2085>
- [16] S. Baek, "The effects of perceived employment barrier of university senior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diation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1, No.2, Dec. 2011. <http://www.earticle.net/Article.aspx?sn=168596>
- [17] B. H. Lee, "Causal analysis of public perception on opportunity inequality", *Korea Social Policy Review*, Vol.24, No.2, pp.157-179, Jun. 2017. DOI : <http://doi.org/10.17000/kspr.24.2.201706.157>
- [18]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pp.1173-1182, Dec. 1986. <https://psycnet.apa.org/buy/1987-13085-001>

- [19] H. J. Im, S. N. Lee,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career barrie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diating effects of career stress career resilience", *The Journal of East West Medicine*, Vol.45, No.2, pp.21-30, Oct.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854002>
- [20] E. Yang,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affect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applied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Ph.D. dissertation, Seoul, Korea, pp.112-114, 2017.
- [21] L. Eskreis-Winkler, E. P. Shulman, S. A. Beal, A. L. Duckworth, "The grit effect: Predicting retention in the military, the workplace, school and marriage", *Frontiers in Psychology*, Vol.5, No.36, pp.1-12, Feb. 2014. DOI:<https://doi.org/10.3389/fpsyg.2014.00036>
- [22] Y. Yoo, J. You, H. Park, "A relationship among grit, objective reasoning, and self-regulated learning efficacy of high-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2, No.10, pp.367-385, Oct. 2015.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370830>

이 숙 정(Sook-Jeong Lee)

[정회원]



- 2005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0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책임연구원
- 2011년 3월 ~ 현재 :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

<관심분야>

교양교육, 교육심리

김 혜 영(Hyeyoung Kim)

[정회원]



- 2009년 9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2009년 12월 :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원
- 2010년 3월 ~ 현재 :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역량교육, 시민교육, IT전략, 교양교육과정